아!…가정서 사라지고 광주 유일 생산업체도 형광등 대체 생산
어!…"손님 반응 안좋다" 시장선 LED 대신 다시 백열등 달아

퇴출 백열전구의 두 모습

'인류의 두 번째 불', '건달불'로 불리며 사랑을 받아 온 가정용 백열 전구가 사라져가고 있다. 정부의 저효율 조명기구인 백열전구 퇴출 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 1887년 경복궁 후원인 향원정, 건청궁 앞마당에 불을 켠 뒤 127년 만이다.

◇형광등으로 바뀐 생산 라인=정부는 지난 2008년 가정용 백열 전구 생산과 수입을 전면 중단키로 하는 백열전구 퇴출 계획을 내놓았다. 소모 전력의 극히 일부만을 전기로 바꿔 주는 저효율 조명 기구라는 점 때문으로, 정부는 '전기 먹는 괴물' 대신, 친환경 고효율 조명 기구인 '발광다이오드'(LED)로 대체키로 했다.

이 때문에 2년 전 퇴출된 소비전력 70W 이상 150W 미만 가정용 백열전구 뿐아니라 올해부터 25W 이상 70W 미만 제품도 생산이 중단됐다. 한때 6200만개(2008년)에 달했던 백열 전구는 지난해 7월 3000만개로 줄었다.

광주 지역 유일한 백열전구 생산업체인 ㈜남영전구 광주공장도 비슷하다. 남영전구 광주공장은 1980년대만 하더라도 7개 생산 라인을 풀가동해 백열 전구를 만들어냈다. 1000명이나 되는 직원들로 북적대던 때도 있었다. 자동화설비가 갖춰진 1990년대에는 1.2초마다 한 개씩 8시간동안 달라붙어 하루에 2만개를 생산했다. 하지만 최근 찾은 공장 내 백열전구 생산 라인은 지난 2011년부터 가동이 중단됐고 그나마 형광등으로 바뀐 지 오래다.

남영전구 광주공장 관계자는 "백열전구가 국내 대표적인 조명기기였는데 에너지 저효율 조명 기구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생산 중단까지 이르게 됐다"면서 "하지만 익숙한 소비자들이 많아 구입하고 싶다는 문의는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LED 재래시장은 더 있어야할 듯=백열등은 저효율에도 불구, 더 밝고 빛이 확산하는 범위가 넓다. 값도 개당 500~1000원(60W)으로 1~2만원인 LED(8W)보다 훨씬 싸다. 교체도 쉽고 백열전구가 주는 은근하고 따뜻한 노란 빛 특유의 느낌으로 "백열전구만 한 게 없다"는 재래시장이나 포장마차 상인들이 적지 않다. 아예, LED로 바꿨다가 백열등으로 다시 교체하는 상인도 생겨나고 있다.

시장에서 8년째 빵을 만들어 팔고 있는 정모(여·44)씨는 "지난 1월 전기 요금을 줄이려고 30만원 들여 매장 조명을 모두 LED로 바꿨다가 손님 반응이 나빠 다시 백열등으로 교체했다" 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생산을 중단한 규격 대신, 200W 이상 백열등으로 바꿨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조명기구로의 교체를 추진하면서 재래시장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200W 이상 백열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광주시 북구 말바우시장의 경우 점포 20개에서 사용중인 조명기구 154개 중 LED는 49개(32%)에 머물렀다. 반면, 200W 이상 백열등은 58개(38%)에 달했다. 150W 백열등도 눈에 띄었다. 일각에서 정부의 백열전구 퇴출 계획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양동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백열등은 다른 전구보다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팥죽전문점을 운영 중인 이모(여·60)씨는 "정책도 좋지만 LED가 필요한 곳과 백열등이 필요한 곳이 서로 다른데 일괄적으로 LED만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전기에너지의 95%를 열로 방출하고 온도가 70도에 이르는 백열 전구 특징을 이용, 보온용으로 쓰는 양계장 등도 난처해하고 있다. /양세열기자 hot@

부실정비 의혹 한빛원전 2호기 또 가동 중단

재가동 100일 만에…주민들 잦은 고장에 불안 가중

원전측, 미승인 제품 쓴 두산重 상대 손배소 내기로

지난해 부실정비 의혹으로 한때 가동이 중단됐다가 재가동된 영광 한빛원전 2호기가 또다시 멈춰섰다.

지난해 11월 19일 재가동된 지 100일 만이다. 한빛원전의 잦은 고장과 사고 등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2일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10시50분께 지진 발생시 원자로 가동을 자동으로 중단시키는 설비 성능을 시험 확인하던 중 회로 이상으로 한빛원전 2호기 원자로 가동이 중단됐다.

현재 한빛원전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함께 가동 중단에 대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빛원전 2호기가 재가동되기까진 최소 10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고장 원인이 회로 이상인지 여부를 검증받은 뒤 재가동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빛원전의 잦은 가동 중단에 이어 사망사고까지 일어나면서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 전국적으로 갑자기 원자로 가동이 중단된 불시정지 건수는 모두 8건이다.

한빛원전 주민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한빛원전 2호기가 고장 났다는 소식에 지역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응을 차분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빛원전은 지난해 2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한빛원전 2호기 증기발생기 보수작업을 하면서 승인받지 않은 물품을 사용해 원자로 가동을 중단시켜 손해를 입힌 두산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한수원과 두산중공업이 원자로 중단에 대한 책임소재를 파악해봐야 한다. 이를 고려해 청구액과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영광=조익상기자 ischo@

영광 한빛원전 2호기 가동이 지난 28일 재가동 100일만에 또 다시 중단됐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고장 원인이 지진 자동정지설비의 회로 이상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여수 기름 유출량 추정치의 4.6배

해경 확인…164kℓ 아닌 655kℓ~754kℓ

지난 1월 31일 발생한 여수시 낙포동 GS칼텍스 원유 2부두 기름 유출 사고를 수사 중인 여수해양경찰은 지난달 28일 기름 유출량이 애초 알려진 것보다 최대 4.6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상배 여수해양경찰서장은 이날 연 우이산호 충돌 기름유출 2차 수사 결과 발표에서 "그동안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름 유출량이 원유 약 339kℓ, 나프타 약 284kℓ, 유성 혼합물 약 32kℓ~131kℓ 등 최소 655kℓ에서 최대 754kℓ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GS칼텍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CCTV 동영상, 도면과 현장 확인 등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 산출한 것이다. 이는 지난달 3일 중간 수사 발표에서 164kℓ가 유출됐다고 밝힌 추정량의 최대 4.6배에 달하는 것이다.

해경은 중간 수사발표보다 유출량이 많아진 이유는 송유관 밸브 차단 시간에 대한 GS칼텍스 관계자들의 진술이 모호해 유출량 산출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차 수사 발표에선 해경이 추정한 유출량은 30인치 나프타, 36인치 원유, 18인치 유성혼합물 등 3개의 파이프에 들어 있는 기름 용량을 근거로 했다. 이에 따라 GS칼텍스 측 관계자들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지난달 4일 국회 농해수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기름 유출량이 애초 발표한 164kℓ의 4배 가량인 642kℓ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새학기 학교주변 유해업소 특별단속

정부가 새 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유해업소 등에 대해 부처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안전행정부는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과 공동으로 학교주변의 교통사고 위험 요소, 유해업소, 불량식품, 위험 옥외광고물 등 4개 안전취약분야 특별점검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달 말까지 시행된다.

학교 주변의 성매매·음란·퇴폐 영업은 물론 키스방과 대딸방·전립선 마사지·유리방 등 신변종업소 영업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비디오방, 청소년시설을 갖추지 않은 노래방 등의 업소가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는지를 살피고 호프·카페·숙박업, 만화대여업 등의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준수하는지도 확인한다. /연합뉴스

찌개에 샤브샤브 국물 넣었다며 아내 때린 철없는 남편

쌍나팔

○…김치찌개에 샤브샤브 국물을 넣었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딸의 신고로 경찰서행.

○…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박모(48)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4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자신의 집 거실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국자와 소주병으로 아내(42)의 눈 부위를 때려 상처를 입혔다는 것.

○…경찰은 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박씨를 가정폭력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는데, 박씨는 경찰에서 "김치찌개를 먹던 중 국물이 떨어지자 아내에게 다시 끓여달라고 했는데, (아내가) 말을 듣지 않고 남아있던 샤브샤브 국물을 찌개 냄비에 넣자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